

## 아이디어창출

# 발명의 발상기법

### 모방도 발명의 시작

발명의 시작에는 모방도 가능하다. 인간의 역사는 조상들의 업을 모방하는 것으로 발달하여 왔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방은 흉내이며, 흉내내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의 세계에서는 모방이 기업인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한 모방은 발전성이 없는 되풀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권할 것이 못되어서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모방이 성공하는 때는 거기에 무엇인가 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방하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도 못한다.

우리들은 이말에서 모방의 참뜻을 잘 새겨야겠다.

강조해 두건데 모방은 결코 경멸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보다는 도리어 원형에 가

까워지려는 노력에서 「왜 가까워 질 수 없는가? 어떻게 앞질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발명)낼 수 있다.

「마네」라는 말은 일본말로 모방이라는 뜻으로서, 마쓰시다(松下)라는 기업에는 남의 모방을 잘 한다는 것을 빗댄 「마네시다」란 별명이 붙고말았다.

마쓰시다라면 직업식 소켓트 하나로 세워진 이래, 오늘날 일본 10대 기업중의 하나로 군림하고 있으며, 발명을 주로하는 개발부에 1천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는 기업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천재적인 모방에서 비근된 기업이다.

마쓰시다의 발명품을 탄생시킨 개발부는 한마디로 「분해부」다. 남의 회사의 발명품을 분해하여, 그것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더하여 자기회사의 발명품으로 개발해내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방의 천재인 일본인의 약삭

빠른 모방의 소산인 것이다.

### 발명과 모방

54세까지 보험 외무사원이었던 미국의 워트만은 펜촉의 개량발명으로 세계적인 만년필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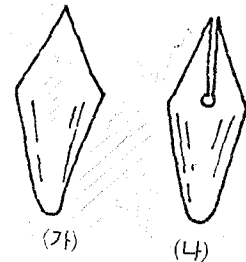
이 사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 믿는다.

펜촉에 관한 사례이지만 모든분야에도 이 같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워트만은 보험 계약실적이 부진하여 가난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한달에 한 두건의 계약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모처럼 큰 계약이 한 건 이루어져서 서명을 하려는 순간 잉크가 뚝 떨어졌다.



(가)

(나)

그것이 불길하다고 다 된 계약이 깨져버리고 말았다.

당시의 펜촉은(가)와 같았기 때문에 잉크가 잘 떨어지곤 했다.

그는 너무 분하여 보험 외무 사원을 그만 두고 새로운 펜촉의 발명을 시작했다.

수많은 펜촉을 사다가 밤낮으로 가위와 줄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양의 펜촉을 만들었다.

그러나 생각처럼 잉크가 떨어지지 않는 펜촉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의 연구는 한달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펜촉의 가운데에 홈을 내고 구멍을 뚫은 (나)와 같은 펜촉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 펜촉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글씨가 잘 써지고 잉크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즉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의 특허품 펜촉을 아내와 함께 만들어 친구의 문방구점에 판매를 의뢰했다.

그의 펜촉은 날개 돌힌듯 팔려나갔다.

2년후에 특허로 등록되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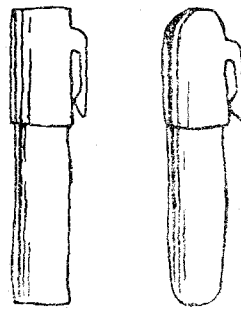
때에는 그는 이미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 있었고, 계속 많은 돈을 벌어들여 일약 세계적인 만년필왕으로 부상했다.

한편, 지금은 「파카」하면 세계 제일의 만년필 회사로 손꼽히고 있지만 처음에는 공작기계 한대로 겨우 5~6명이 만년필대를 만드는 보잘것 없는 회사였다.

워트만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 파카는 모방으로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를 이뤄 놓았다.

당시 볼폼 모형의 유행은 유선형이었다.

비행기와 자동차까지도 유선형이 채택될 정도로 대 유행이었다.



(가) (나)

파카는 이때 유선형을 만년필대에 채택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당시의 만년필대는 (다)처럼 위아래가 막대 모양이었다.

파카는 이것을 (라)처럼 끝을 둥글게 하여 의장으로 출원했다.

성공이었다. 파카는 이 의장 하나로 오늘날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때부터 발명광이라 할 정도로 발명에 몰두하여 만년필에 관한 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다.

펜촉과 만년필대에서 보았듯이 발명이란 마음 먹기에 따르는 국민학교 어린이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다.

우리들의 주위는 펜촉과 만년필대처럼 개선의 손길을 기다리는 발명의 소재 투성이이다.

거듭 강조해 두건대 발명은 과학과는 달리 엄청난 학문이나 이론을 요하지 않는다.

바로 눈앞의 작은 아이디어를 물체화시키는 것으로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계속>

## 아이디어뱅크 개설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키므로써 汎國民的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對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接受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 서울江南區驛三洞 814-5 發明獎勵館(TEL : 568-8263)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轉讓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본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